

獨學에 의한學位取得制의 施行上 과제

洪 基 亨

(中央大 教育學科)

이 글에서는 최근 政策當局이 평생교육 및 교육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獨學에 의한學位取得制’의 施行令(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이 制度를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問題點과 發展課題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책 당국과 대학인 모두에게 이 제도가 기존의 대학 체제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1. 序 言

최근 우리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서도 獨學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문교부는 이미 학위 취득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방법, 합격 기준 등을 정하는 ‘獨學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 施行令을 입법 예고하면서 1990년 10월경에 그 1단계인 교양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높아만 가는 高等教育에로의 대학 진학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보자는 의도에서 다소는 전격적인 문교 정책이라 하겠다.

실천적인 정책 과제로서의 제도적인 기능과 구조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 제도의 기본 구상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대학 진학의 기회를 상실한 학습자들

위한 고등교육 기회의 제공에 있다. 누구에게나 반가운 제도임엔 틀림없다. 새로운 고등교육 제도의 혁신적인 圖式으로서 현재의 고등교육 기관이 안고 있는 관료적이면서도 획일적인 병리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취지가 전제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구상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反作用이 따르게 마련이다. 더우기 대학 진학 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경험한 잘못된 인식과 부작용의 속성을 지니게 된다. 기본 구상에 대한 순기능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다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호지부지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모처럼의 발상이 알찬 고등교육 제도로서의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념과 실천상의 의지 그리고 실천적인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우선 이 제도가 현재의 고등교육을 둘러싼 상황적인 병리 문제와 현실적

인 교육적 요구들과 어떻게 관련지어 나가며,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고등교육 제도로서의 이념과 실천상의 전제 조건들은 무엇인가를 밝혀 보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교부가 구상하고 있는 시행령(안)의 개요를 검토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도 함께 살펴 보기로 한다.

2. 獨學에 의한學位取得에 관한法律施行令(案)의概要

1) 主要骨子

이 시행령(안)은 1990년 3월 29일자 입법예고한 법안에서 위임된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구상중에 있는 내용이다.

① 대상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自學自習에 의하여 학사학위의 취득을 희망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② 학위 취득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방법 및 합격 기준 : 이에 관한 사항은 시험 실시 기구에 섬의 기구로서 독학 학위 운영위원회(학계 연구기관 및 사회 단체 관계 인사 15명 이내로 구성)를 두어 상담과 시험 응시 안내 등을 맡으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희선은 시험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독학자를 위한 교과과정의 편성, 학위 취득 시험의 출제·관리를 중심으로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과정을 뒤의 <표 2>와 같이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¹⁾

③ 시험 과목 및 전공 분야 : 문교부 장관이 미

<표 1> 독학 학위 취득 시험의 운영안

구 분	응 시 자 격	시 험 방 법	합격기준	과 목 별 격
교양과정 인정시험	· 고졸 학력자	선택형에 서술적 단답형 혼용	60% 이상 득점	인 정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 교양과정 합격자 · 대학 1년 이상 수료 학력자	”	”	”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 전공기초과정 합격자 · 동일분야 대학 2년 이상 수료 학력자	선택형과 논문형 혼용	”	”
학위취득 종합시험	· 전공심화과정 합격자 · 대학졸업 학력이 인정된 자(동일분야)	”	”	불 인 정

리 고시하도록 하고 시험 과목별 평가 영역은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1990년 첫 해는 4월 중으로 단계별·계열별 시험 과목을 확정·공고하고, 제1단계인 교양 시험을 오는 10월경에 실시할 계획임).

④ 시험 과목의 단계 및 실험·실습 과목의 시험 실시 : 시험 응시자가 국가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 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실험·실습 과목의 시험은 대학 또는 연구 기관에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시험 실시 및 결과 처리 등 학사 관리 : 제반 독학 업무를 중앙교육평가원장에게 일임하여 시험 실시 결과의 보관, 시험 공고, 출제 등 필요한 시험 관리를 위임하도록 한다.

⑥ 이밖에도 독학자의 학습과 시험 응시를 위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해 각 시·도 교육위원회, 국립 및 시·도립 도서관에 독학 정보 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2) 基本趣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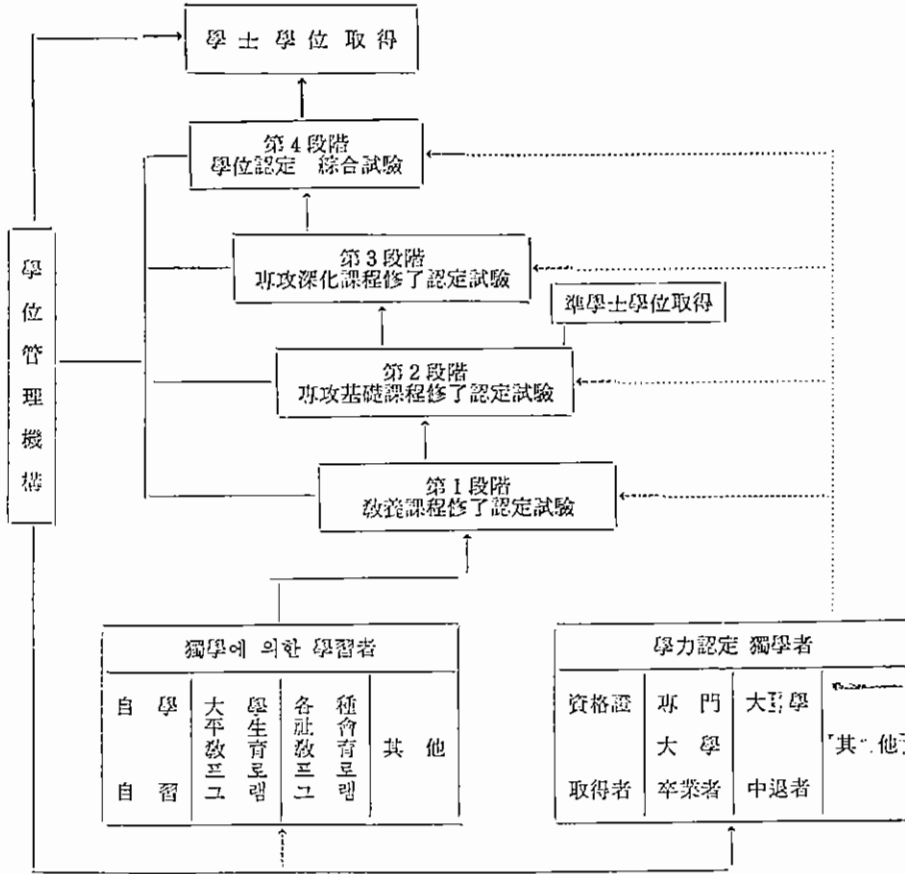
그간 교육정책자문회의가 대통령에게 정책건의하여 채택되었다고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본 구상과 취지로 정리될 수 있다.

① 고등교육 체제의 다양화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도는 지금까지의 규격화된 기관 중심의 교육 체제로부터 기관의 학위제를 마련해 봄으로써 대학교육 체제의 개방화·다양화를 기하는 데 두고 있다. 따라서 고

1) 최희선,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방안”, 한국대학사회교육협회, 1990. 2.

〈표 2〉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과정



※ 準學士는 專門大學修了 認定學位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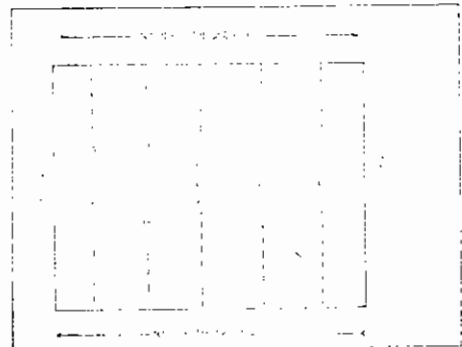
교 졸업자 중 경제적·시간적 제약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한 사람에게 다양한 자습자과정과 일정한 단계의 시험 절차를 거쳐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 제도의 융통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승한은 한국대학사회교육협회 연구 발표 자료(1990)에서 이 제도의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 제도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고등교육 체제의 다양화·특성화와 교육 단계의 확충·개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표 3〉과 같은 고등교육 체제의 모델로 도식화하고 있다.

② 평생교육 체제로서의 성격 강화

이 제도의 깊은 교육적 이념은 오늘의 학교 교육 제도의 경직성과 획일성에서 벗어나 공부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표 3〉 고등교육 체제의 다양화·특성화



학습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의 이념 구현에 두고 있다. 독학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응시 자격이나 시험 과목의 면제 등에서 대학과의 연계성과 함께 사회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산학협동의 평생교육 체제로서 기업 및 사회 단체 등의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다

양한 수준에서 활성화시키는 데 목표를 둔다.

③ 고등교육을 향한 사회적 수요와 열정의 완화
한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는 과잉 교육열 현상이라는 비판을 넘어서서 보편화된 교육의 병리 문제가 된 지 오래다. 대학교육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책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절실한 입장에서 독학 학위 취득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 되어 줄 것을 의도하고 있다. 기존의 대학 정원을 늘리거나 개편함이 없이 비 기관 형태의 학위 취득 장치를 마련해 보는 발상은 오늘의 고학력 사회의 병리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사회적 요구와도 부합된다. 성공적인 제도의 운영을 통해 대학교육 수요 집단의 요구를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제도는 다양한 대학교육 제도의 기능과 역할의 일부를 맡아서 특성화시켜 감으로써 기존의 고등교육 기관들과의 협력 체제를 갖추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3. 施行上 豫상되는 問題點

문교부가 시행을 앞두고 현재 구상하고 있는 시행령(안)의 기본 취지와 골격을 놓고 관심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시행상의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문제의 접근을 보다 거시적으로 종합해 보기 위해 우선은 그간 거론되었던 문제점들을 몇 개의 항목별로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獨學 學位制度에 대한 취지와 社會的 認識에 관한 問題

이 제도가 아무리 거시적인 고등교육 기회의 개방적인 관점에서 타당성을 지닌다 해도 우리의 현실은 아직 이를 받아들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형식적인 학교 제도의 틀만을 고집해 온 잘못된 학력 사회의 교육관은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러는 거부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전통적인 학교 제도 교육만을 중시하는 학교 신앙주의자들의 의식 개혁이 무엇보다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제도의 정착과 목표 달성은 정책 수립의 이념, 추진 과

정, 평가의 결과에 걸쳐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게 된다. 이 제도가 앞으로 현재의 고등교육 기관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집행되어 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문교부의 설립 이념은 평생교육 이념에 터하여 고등교육 기회 상실자를 위한 유연성 있는 새로운 고등교육 체제로서 기존 대학들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간 현재의 고등교육 체제의 구조적인 개혁을 요구하면서 보다 개방적으로 유도하여 고등교육 수요의 증진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좀처럼 전통적이면서도 고식적인 학교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고등교육 기관 상호간의 연계성과 인식의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어 왔다. 현재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전문대학 등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반 대학과의 상호 협조성과 연계성 미흡으로 제대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생교육 이념의 차원에서는 설립 이념마저도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사회적 인식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독학 제도의 기본 이념 구현과 관련하여 어떤 계층의 어떠한 직업 종사자가 수혜의 대상이 될 것인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예상컨대,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중산층 인구보다는 하위 계층이 주된 대상이라 할 때 고등교육 기회의 획기적인 확대도 좋지만,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발전적인 고등교육 체제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의도에서 좋은 출발이 되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일부의 대상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 관계자들은 긍정적이고 사회적인 인식 고취와 획기적인 정책 과제로서 기본적인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보다 더 넓게 기존의 제도와 교육 기관들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면서 충분한 재정 투입과 가능성 진단의 연구가 필요했었다는 점이다.

2) 學位取得試驗에 관한 問題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이 국가 기관으로서의

학위 관리 기구에 의해 실시되고 수여되는 점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리·운영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고등교육 체제에 있어 독학 제도는 철저한 시험 점수 위주의 학위 수여 제도로서 앞서가는 나라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혁신적인 성격임을 유의해야 한다. 시험 위주의 학위 취득은 학위의 질적인 수준의 저하 문제와 함께 평생교육으로의 교육관 전환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대학교육이 지나친 점수 위주의 학적 관리로서 형식적인 졸업장 수여로 끝나는 지적인데, 이 제도는 형식적으로나 시행상의 과정과 결과를 시험으로 판가름내야 하는 ‘資格證弊’ 문제의 소지를 너무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역기능적인 부작용은 이미 올해 첫 단계 교양 시험 실시를 앞두고 이를 준비시켜 주겠다는 사설 학원의 난립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등교육의 수월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학위 취득을 위한 학원식 준비 과정은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학위 취득 시험의 과정 선택과 내용 수준을 어떻게 설정해 가느냐의 문제이다. 기존의 고등교육 기관들과의 연계성 속에서 학문적 수준의 설정, 시험 과목, 상호간의 관련성, 실험·실습 분야의 평가 문제 등을 어떻게 접근하여 실시해 갈 수 있는가는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셋째, 학위 취득 시험의 관리와 운영을 국가 기관의 성격인 하나의 학위 관리 기구가 관장하려는 계획은 이 제도의 취지와 장기적인 시행 과정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도는 현존의 고등교육 기관 및 산업체들과의 상호 협조와 연계를 가지고 융통성과 자율성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학교가 누려왔던 관료주의적인 행동 중심의 발상은 버려야 할 것이다. 국가는 평가의 기본적인 영역이나 골격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고등교육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견해이다. 비용 효과 측면에서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이다.

3) 獨學의 質的 秀越性 提高를 위한 學習 條件의 問題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은 순수한 자학 자습 (self-directed learning)을 원칙으로 기존의 각종 교육 기관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정 수준의 고등교육의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독학의 주요 변인인 개인 학습으로서의 자학 자습과 이를 지원해 주어야 할 학습 환경 체제로서의 각종 교육 기관들의 학습 조건들이 얼마나 고도화·전문화·다양화되었느냐에 있다. 즉, 독학자를 돕는 다양한 학습 기회로서 질 높은 대학 기관들과의 연계와 각종 기업·사회교육 기관들의 프로그램이 독학의 질적 제고와 학위 취득 시험 과정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단순히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서만의 기능뿐이고 실제의 학력 제고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학습 조건들은 결국 독학에 의한 학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받게 되는 인정(social approval)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각종 고등교육 기관들의 연계 위에서 각종 자격증 취득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학력의 질적 보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다. 시험 관리와 학사 관리를 위한 독학 학위 운영위원회(안)에 관한 구성과 기능은 그런 대로 잘 짜여 있으나, 독학자의 학습과 상담을 맡아서 도와 주어야 할 소위 ‘독학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와 배려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들 한다. 학교의 교육 형태로서의 독학 과정은 학습자의 성격, 그들의 생활 구조, 부과해야 할 학습 내용 등에 있어 일반 학교 기관과 비교해서 훨씬 많은 학습 지원 체제가 요청되는 문제이다.

벌써부터 독학자를 위한 어느 한 사실 학원의 안내 선전에서 “獨學은 독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취득을 위해 생명을 걸고 도와드립니다”라는 광고 문안을 읽으면서 우리는 독학에 대한 개념과 흐름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平生教育 理念 具顯을 위한 獨學制度의 基本前提

앞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금번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도는 학교 교육 중심 체계로부터 學校外 교육 체계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평생교육의 이념적 기초에 터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행·재정 지원의 성격과 현행의 각종 교육법 체계 등도 함께 개편되어야 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승환²⁾은 현재의 교육법 체계는 1949년말에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므로 교육제도 전반을 평생교육 체계로 전환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뿐더러 그 자체가 수척스러운 일이라고 독학제와 관련하여 지적하고 있다. 그는 독학제 입법에 앞서 근본적으로 개편 작업이 필요한 법 개정은 교육기본법(평생교육법), 학교교육법, 사회교육법, 직업교육법, 교육제정법 등으로서 평생교육 체계의 지향이라는 입장에서 반드시 고려했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독학제를 위한 행·재정 지원도 운영과 관리, 제정의 집행 등에 있어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것이다. 모든 행·재정 지원을 중앙집권식의 사고와 집행으로 획일적이고도 경직성의 시대착오적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다 거시적으로 미래를 내다 보는 자율성에 근거하는 독학 제도의 행·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4. 獨學에 의한 學位取得制度의 發展 課題

현재 실행 단계에 있는 독학에 의한 학위 수여 제도는 고등교육 분야에 있어서 공간적(교육의 장소), 시간적(교육 기회), 관습적(교육 형태) 개념을 새롭게 바꾸어 가도록 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 즉 현재의 고등교육 기회는 젊은 층 일부만이 독점하여 학교라는 제도적인 틀 속에서 일정 기간 소속되는 것에 반해서 독학제는 그렇지 않다. 독학 제도는 일반 누구에게도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 체계의 혁신적인 개방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앞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새로운 혁신적 제도의 수용성 여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적인 대안과 논의가 요청된다.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의 발전 과제로서 현재의 독학 제도가 어떻게 자리잡아 가야 할 것인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獨學制度에 대한 社會的 認識 鼓吹

독학 제도는 전통적인 대학교육 방법에 비하면 매우 혁신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교육 제도가 사회 일반으로부터 올바르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참된 이해를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일정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학점 취득의 과정을 거쳐 졸업장을 받아야만 되는 것만으로 인식하는 고정 관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독학 제도가 평생교육 이념에 터한 제도로서 자리를 잡는 데는 일반 국민들은 물론 고등교육 기관 관계자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학교 교육에 대한 ‘資格證主義’의 학교 신앙을 버리고 능력과 업적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고등교육 종사자들이 지녀왔던 권위주의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를 의식하는 고등교육 체계를 보다 개방화하고 다양화해 가는 데 앞장을 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학 제도 자체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협의와 연구, 관계 교육 기관이나 산업체와의 공동적인 연구와 협조, 연계성의 강화, 독학자들의 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이 올바르게 사회 일반에게 인식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에는 언제나 3개의 기본적인 가치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갈등을 느끼게 마련인데, 이를 지혜롭게 도전하여 하나 하나 달성해 가야 할 것이다. 즉 독학 제도에 대한 質, 平等性, 그리고 效率性의 가치 부여를 제도 운영 전반에 적절하게 고려해 가는 노력이다. 일반적으로 질(학문적 권위)을 강조하면 평등성(기회의 개방성)이 저하되고, 반대로 평등성을 강조하면 질이 저하되는 상대적인 측면의 조정

2) 김승환,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도와 대학 사회교육의 발전 과제”, 한국대학사회교육협회, 1990. 2.

을 효율성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학 제도가 사회 일반으로부터 좋은 반응과 인식을 구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의 고려가 필요하다.

① 수용성: 제도의 취지를 찬성하거나 직접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

② 적절성: 사회의 필요 및 기대에 비추어진 제도 운영의 합리성

③ 질: 학위 취득자들의 학업적인 성취 수준

④ 비용 효과: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⑤ 연계성: 관련 교육 기관 및 사회적 프로그램과의 상호 협조면

⑥ 배출: 학위 취득자의 분포

2) 獨學者를 위한 效率的인 學習方法 支援 體制 強化

먼저 우리는 개인 학습 형태의 독학이라는 말의 개념을 규명하면서 독학의 방법에 대한 흐름과 효율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독학이란 특정의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방법으로 학습하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이 독학은 대개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학습해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끔은 잘못된 학습의 방향을 가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 단독의 학습 상황이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누군가로부터 적절한 지도·조언이 요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독학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 없이 내용과 객체만 있어서 결국은 '내용-객체'라고 하는 학습 활동 형태로서 객체인 독학자 스스로가 학습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독학자들은 자기의 의지로 자발적·자주적으로 학습해 간다. 자기의 관심, 동기, 능력 또는 자기의 지리적·시간적 환경에 맞추어 자신의 속도대로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독학은 적절한 자기 학습 방법의 발견, 학습 동기의 불안정, 학습 과정상의 시행착오 되풀이, 극부적 학습 경향, 자주적인 의지의 요구, 교사-학생간의 인격적 상호 교류 부족 등의 약점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학자의 학습은 다음과 같은 학습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

① 학습 정보의 제공: 학습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학습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수강 신청 안내, 사회교육 시설 이용 방법, 도서 및 학습 자료 안내 등)

② 효율적인 학습 습관 형성 및 방법에 대한 지도: 효과적인 자기 학습 방법의 발견은 개인적으로 터득하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 따라서 학습의 요령과 태도를 몸에 익히는 학습 습관 지도를 '독학 정보 센터'의 정기적인 학습 방법 세미나 등을 통해 지원해 주어야 한다.

③ 상담 기능의 강화: 학습 과정에서 야기되는 학업 지도에 대한 상담도 중요하지만, 독학자 자신들의 삶을 안내하는 카운슬링 서비스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담 인력 자원으로서 정년 퇴직한 유능한 교수 출신들의 학문적 경험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봉사 체제를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3) 既存 高等教育機關 및 關聯 社會教育 機關들과의 連繫性

오즘의 대학들은 고등교육의 보편화 경향에 따라 대학교육 인구의 팽창을 감수하면서도 대학교육의 개방을 대학간의 상호 협력 체제의 구축을 통해 이루어 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도도 기존의 고등교육 기관들과의 효율적인 상호 협력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 운영의 경직성 및 보수성과 그 운영의 폐쇄성 등의 이유로 인해 고등교육 기관과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가에 있다.

독학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학교육 기관, 각종 직업 훈련 기관, 사회교육 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성 위에서 질 높은 학습 풍토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독학 제도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존 기관들의 연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① 어떤 형태로든지 독학제의 운영과 관리는 기존의 대학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한다. 국·사립 구분없이 지역적 조건을 감안하여 해당 대학 자체가 중심이 되어 독

학제를 운영해 가야 할 것이다.

② 독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교육 기관 및 기업체의 교육 프로그램과의 긴밀한 연계성도 요구된다. 평생교육 체제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고등교육 기관과의 상호 협조는 물론 다양한 사회교육 기관의 프로그램과도 접목되어 질적인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③ 독학 제도는 각종 공인된 자격증과의 연계를 지니면서 시험 과목의 면제 조건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일정한 교과목 위주의 학사 취득 시험으로만 방향을 잡게 되면, 산학협동 체제로서의 평생교육 이념도 결과적으로 무너지고 말게 된다. 산학협동 체제로서의 독학 제도는 현행의 각종 국가 및 공인의 자격증 제도의 체계화 작업과 병행해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진공 분야에 따라 각종 자격증을 선별하여 학위 취득 시험 과목과 연결시켜 가는 유연성이 요구된다.

4) 行·財政 支援體制의 柔軟性

오늘의 학교 교육의 병리 현상 중에서 크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학교 교육 행정의 폐쇄성과 획일성,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사고와 자세라 하겠다. 독학 제도로도 이러한 고질적인 형태로서의 행·재정 지원 체제로서 관리·운영된다고 하면 출발부터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보다 유연성 있는 자율적·개방적 관리·운영이 요구된다.

① 독학제의 관리·운영은 중앙집권적인 행·재정 체제로부터 지역 중심의 탄력성 있고 효율적인 경영 관리 체제로 시행되어야 한다. 지역 중심의 대학들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행정 철학, 행정 목표, 통제 방식, 재정 및 법적 기반 등을 갖추고 있다고 볼 때 모든 집행의 권한과 의무를 과감하게 이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따라서 학사 학위 취득 시험에 관한 대부분의 관리와 결정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결정해 가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독학 제도의 특성을 살려 학사 학위 취득자 수의 조정, 학위 수여 등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해 감으로써 평생교육 이념에도 부응하는 제도로서 발전시켜 가야 한다.

③ 독학제 운영을 저해하리라 예상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재정상의 지원 문제라 하겠다. 흔히 평생 학습 기관의 재정 문제를 수익자 부담 원칙 아래 기본적인 투자와 유지비 지출에 인색한 것을 당연시 하는 데 문제가 있다. 변화를 추구하는 독학제의 채택은 평생 학습 지향 교육 체제로의 국가적 정책 과제로서 비용 효과의 투자 계획을 보다 길게 잡고 지원되어야 한다.

5. 맺는 말

이상으로 독학에 의한 학사 취득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고등교육 체제로서의 수용성 문제와 앞으로의 발전적 과제를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독학 제도의 마련은 오늘의 대학교육의 개방화와 다양화라는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큰 의미를 지닌다. 대학교육의 개방화 실현의 일환으로 이를 실천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책 당국이나 대학인 모두가 이에 대한 실천 의지로서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모름지기 이 독학 제도가 기존의 대학 체제와의 연계성을 지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형편 닿는 대로 대학의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

〈參考文獻〉

- 김승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와 대학사회교육의 발전과제", 한국대학사회교육협회, 1990. 2.
- 최희선,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방안", 한국대학사회교육협회, 1990.
- 문교부,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990.
- 박동준·차감부 공역, 평생교육론, 교육과학사, 1990.
- 경원대학교, "변모하는 사회와 대학 발전상의 탐색", 경원대학교, 1989.
- Duncan D. Campbell, *The new majority*, University of Alberta Press, 1984.
- Hal Beder, *Marketing Continuing Education*, Jossy-Bass Inc. Publishers, 1986.
- Judith Bell, *Never too late to learn*, Longman London, 1982.